

# 지역 주도형 일자리정책 성과 공유

### 팔복예술공장서 '서남권 지역 일자리 특별위원회' 개최

#### 권역별 특위 통해 발굴된 건의사항, 정부 정책 구체화 김용기 부위원장 "산업·혁신·고용 선순환체계 구축"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부위원장 김용기)는 17일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서남권 지역 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현장에 밀착해서 일자리 현안을 점검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우수한 일자리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권역별 지역 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수도권과 동부권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권역별 지역 일자리 특위로, 지역 일자리의 핵심거점인 산업단지 내에서 개최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서남권 특위에는 전북·광주·전남의 일자리 담당관이 참석해 시·도별 주력산업 및 일자리 현황과 함께, 산단 대개조,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역균형 뉴딜 등 지역의 핵심 일자리 정책 추진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전북도는 한국GM 철수와 자동차 산업 구조변화에 대응해 미래 친환경 자동차 산업 육성, 특장차 경쟁력 강화를 위한 클러스터 구축 등 28개 연차 사업에 6,694억원을 투입했으며,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단 대개조 사업과 군산 상생형 일자리, 전북형 뉴딜 등 지역 주도형

일자리 정책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서남권 지역 일자리 특별위원회에 앞서 김용기 부위원장은 전북 산단 대개조 사업 수혜기업 대표를 만나 지역 일자리 관련 현안을 살피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자리위원회는 향후, 중부권(대전·세종·충북·충남·제주) 지역 일자리 특위를 개최해 시·도별 일자리 정책의 개선 방향과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권역별 특위를 통해 발굴된 정책 아이디어와 건의사항을 일자리위원회 안전 등 정부의 지역 일자리 정책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용기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충격에도 우리 경제를 굳건히 지지했던 것은 지역의 제조업 기반이었다"면서 "정부와 지역이 산업정책, 혁신정책, 고용정책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성장과 미래 일자리를 만들어가

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표 지역 일자리 사업인 '상생형 지역 일자리 정책'이 최근 대구시에 이르기까지 총 8개 지역과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며, 특히 1호 협약 지역인 광복의 경우 캐스퍼를 성공적으로 양산해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전국 시·도 노후산단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 산단 대개조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가 향후 지역산업의 혁신적 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 발굴을 위해 지자체와 중앙부처, 민간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일자리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요소수 수급안정 긴급 간담회

전북도는 17일 도청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 쉘아톤산업 김기원 대표, 전북지방환경청 윤중호 청장, 전북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양봉식 이사장, 범일 위탁영농법인 이찬호 대표가 참석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문화·관광·생태도시 전주, 세계가 주목'

### 김승수 시장, 한·일 화상 공동세미나서 시 혁신 사례 등 소개

김승수 전주시장이 한·일 전문가들에게 전주를 꾸준히 성장하는 젊은 관광도시이자 세계적인 문화도시,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로 소개했다.

김승수 시장은 17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KRIRA)과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CLAIR)가 공동 주최한 제2회 한·일 공동세미나에 화상으로 참여해 '세상을 바꾸는 힘은 상상력과 용기 그리고 사회적 연대'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인구감소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내로라하는 한국과 일본의 학계 전문가와 연구원, 공무원들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해 토론을 펼

쳤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인구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시 생태의 변화가 중요하다고면서 관광·문화·생태 분야 순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시장은 전주를 '꾸준히 성장하는 젊은 관광도시'로 소개하면서 30대 이하 관광객이 약 50%인 젊은 관광객 중심의 관광도시이자 영국의 더 가디언, 미국의 CNN, 세계적인 여행 전문출판사 롤리플래닛 등 세계 유수 언론이 주목하는 도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주가 유네스코 무형유산의 도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국제슬로시티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문화도시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또 시민과 함께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한 사례, 도시가 숲으로 연결되는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사례, 감옥 같은 동물원을 동물이 행복한 생태동물원으로 변모시킨 사례 등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나아갈 혁신 사례 등을 소개했다.

특히 오는 2025년까지 에너지자립률 30%, 전력 자립률 40% 달성을 목표로

한 지역 에너지계획인 '에너지자립 3040'을 실현해 사람과 환경·지구를 살리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오는 2050년까지 실질 탄소배출량을 1(제로)으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민·관 추진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김 시장은 "원하는 것을 꿈꾸는 상상력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 줄 아는 용기 협력을 통한 사회적 연대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힘을 길러왔다"면서 "사람, 생태, 문화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는 가운데 변화와 혁신을 멈추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제2회 한·일공동세미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함께 기조강연에 나선 아바노 유키요시 이사차이엔 가나자이시장은 '가나자이의 전통과 창조적인 마을 조성' 사례를 발표했다. /김윤상 기자

### 에너지 미공급 지역 주민 지원

## 지방의회 우수조례 선정

### 두세훈 도의원, 1급 포상

완주군 13개 읍·면 마을번호사 출신인 두세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이 제정한 '에너지 미공급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5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돼 1급 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정책 평가와 법률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장 및 위원으로 선정해 지방의회-우수조례의 정책 연계성, 창의성, 혁신성, 지역성, 파급성 등을 개별 서면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지원한 광역의원 135명 중 20명을 1급 포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두세훈 의원은 "인간의 삶에 에너지는 필수적이고, 한국에 전기가 공급된 지 134년이 지났지만, 아직 도내에는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 주거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서 시름하는 도민이 있어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전라북도 에너지 미공급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방의

회 1급 포상자로 선정된 것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자, 사회적 약자들이 보편적인 주거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



안편과 배려에 대한 김승수가 돋보인 주거복지조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두 의원은 "소외된 도민을 위한 제도마련이라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이런 큰 상을 받았다"며 "저보다 훌륭한 도의원 선배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수상의 영예를 주신 것은 민생 현장에서 두배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명령으로 알고 도민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적정 인도를 책임져야 하는 시대"라며 "본 조례가 도내, 더 나아가 국민 모두가 보편적 주거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두세훈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조례제정 10건, 조례개정 4건, 공동발의 42건, 건의안·결의안 11건, 5분 발언 8건 등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유호상 기자

## 인구감소지역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이끌다

### 한병도 의원, 최우수 법률상 수상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시,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 작년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2021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본상을 수상했다.

2021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은 정책 전문 미디어 머니투데이 이 300(the300)과 법률앤미디어가 수여하는 상으로 이번 상은 2020년 11월에서 2021년 10월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발의된 법안 중 응모된 총 300여건의 법안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본상을 수상한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인구감소 위기 지역을 지정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6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정부는 현재 전국 89곳의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병도 의원은 "법 시행 초기에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면서 "앞으로 전국의 인구감소 지역이 국가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활기가 넘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